

“AI 시대, 전북 교육 새 판 짜겠다”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핵심 기조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감 직속 교육공동체위 설치·AI 기반 100인 100색 맞춤교육 실현 등 발표

34년 현장 교사 출신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이하 새참교육) 대표가 10일, 내년에 치러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는 민선 이후 한 번도 교사 출신 교육감이 없었다”며 “이제는 교육 현장의 온도를 알고 아이들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교사가 교육감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불법계엄 사태 언급과 함께 “민주주의는 가르치고 경험하며 참여할 때 성장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정책의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노 후보는 △교육감 직속 ‘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 △AI 기반 100인 100색 맞춤교육 실현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전면 도입 등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자 다른 아이들을 위한 각자 다른 교육’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현하겠다”며 “학생·학부모·교사·교육행정·지역이 함께 정책을 결정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제공)

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교육청 각 위원회에 현장 교직원 참여 비율을 70%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교육과 관련해서는 “창의·체험 활동을 혁신해 개별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금융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생애설계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아침밥 지원과 여유 있는 등교 문화 조성, 금융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삶 설계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순창 출신인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는 전주생명과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34년 6개월간 근무했다. 그는 현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유·초·특수 교사 임용 1차 합격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립은 최종 선발예정 125명의 1.5배 수인 177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유치원 일반 84명 △유치원 장애 1명 △초등 일반 80명 △초등 장애 1명 △특수유치원 일반 8명 △특수초등 일반 3명이다.

시험은 전북해화학교에서 선발하는 특수초등 일반 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교육원채용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립 1차 합격자는 1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전북교육청 창조미래 별관 2층 2회의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가우편을 통한 비대면 제출도 가능하다.

시험의 경우 서류 점수와 이후 절차는 해당 법인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7일 교직적성·심층면접, 1월 8일 수업실연, 1월 9일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초등만 해당) 순으로 전주솔네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김재훈 기자

‘마지막 선택형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북교육청, 2027학년도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유정기)이 고2(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전략 설명회를 13일 오후 1시 전북교육청 창조미래 3층 시청각실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전환기를 앞둔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고, 최근 수능 출제 경향과 영역별 핵심 학습 포인트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대비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EBSi 대표 강사인 김철희 국어 강사, 이국희 수학 강사, 김수연 영어 강사가 참여해 전국 단위 분석 자료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2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학습 요소와 고3 학습 효율을 높이는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설명회는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진행되며, 과목별 학습전략과 고득점자의 학습 패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12일까지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등록도 받을 예정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전북교육대입정보 TV’에 게재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지역 학생들이 고3 시기를 보다 알차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수능 전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가 학생들의 학습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현대 중국어 문법 연구 새 지평 열다

전북대 박용진 교수, ‘공자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박용진 교수(인문대 중어중문학과)가 중국학 분야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공자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중국학회와 동아대 학교 공자학제미가 중국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우수 학자를 발굴·격려하고,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학 분야에 서 발표된 모든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학문적 기여도,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뛰어난 논문을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현대중국어 교육문법과 언어접촉 등이 주요 전공인 박용진 교수는 문법 난이도 체계 설계 등 중국 교육 언어학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증적 연구를 지속해왔다.

박 교수는 2024년 ‘중국어는종 제85집’에 발표한 〈Morpheme과 현대중국어 번역어 語素와 詞素 사용에 관하여〉에서 중국어 언어학의 핵심 개념인 語素와 詞素

의 사용 흔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반언어학의 morpheme 개념과의 대응 관계를 정밀 비교했다.

또한 올해에는 〈생성형 시를 활용한 중국어 변형 구조 문장의 생성 연구〉를 통해 기존 이론 중심의 문법 연구를 AI시대에 맞게 확장하면서 중국어 교육과 언어공학의 융합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심사위원단은 “박 교수의 연구는 중국어 문법의 핵심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동시에, 최신 AI 기술을 학문적 분석에 접목한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며 “2024년 발표 논문 중 학술적 기여도와 미래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성과”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중국어언어연구’, ‘중국어교육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50여 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중국어교육론’, ‘중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왕오천축국전을 읽다’ 등 단독 저·역서를 포함해 19편의 저술을 펴냈다.

박 교수는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중국어 교육문법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중국어 교육과 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나카사키외국어대학 이사키와 이키히토 총장과 박영규 부총장은 10일 전북대를 방문해 양오봉 총장, 조화림 국제처장 등과 만나 복수학위 협정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나가사키외국어대학과 복수학위 추진

나가사키대학 총장단 방문해 국제 복수학위제 세부사항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일본 나가사키외국어대학(Nagasaki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과 국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양 대학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나가사키외국어대학 이사키와 이키히토 총장과 박영규 부총장(외국어학부장·국제교류센터장 겸직)은 10일 전북대를 방문해 양오봉 총장, 조화림 국제처장 등과 만나 복수학위 협정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서는 참여 전공 설정, 학생 선발 기준, 교육과정 연계 방식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 대학은 2012년 MOU 체결 이후 교환학생 파견·초청, 단기연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10년 이상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나가사키외국어대학 학생들이 전북대 필름코리아(Korean Culture Experience)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등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라는 고도화된 학술 협력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재훈 기자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학폭 교육적 해결 힘 보태

올 도내 총 138건 사안 중 114건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

학생 갈등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이 올 한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51명이 올해 총 138건의 학교폭력 사안에 개입해 이 가운데 114건을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8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약 89%의 사안이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는 학생 갈등 상황에 신속히 개입해 피·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을 돕고 학교 공동체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글로벌대학사업 분야별 혁신 전략 컨설팅

전북대, 성과 제고 위한 컨설팅 키포프 회의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대학사업 3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분야별 혁신 전략 컨설팅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대는 10일 진수당에서 ‘글로벌대학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키포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대 글로벌대학사업추진단과 건국대, 고려대, 국립국제교육원, 국토연구원, 노무법인 나인, 대한변리사회, 산업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전북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각 분야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전북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선정돼 △일하고 살고 싶은 지·산·학·연 공동체 구축 △학생 중심 배리어프리 플러그인 대학 실현 △유학생이 찾고 정주하고 싶은 지역 만들기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혁신을 추진해왔다.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

하고,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추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위원회는 전북대가 마련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해 앞으로 현실성, 타당성, 구체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보완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대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지역·산학협력 혁신, 교육 혁신, 글로벌 혁신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추진과제와 24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산학협력 분야에서는 JUC Triangle(새만금, 전주·완주, 익산·정읍) 구축, 학연융합 공동캠퍼스 조성, JBNU 지역발전연구원 운영 등 지역 혁신 클러스터 전략에 대해 앞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남대 폐교 부지 리모델링,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등 폐교 대학 업사이클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모집

단위 광역화 △진공자율선택제 △융·복합 모듈전공 △다전공 선택제 △디지털 역량 인증제 도입 등 학사 구조 혁신과 관련한 사항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점검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 콘텐츠 공유, 지역대학 간 상상, 남원글로벌캠퍼스 한국어 학당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혁신 분야에서는 전북대 국제센터 설립, 유학생 실습·인턴제, 글로벌 PBL 운영, 해외 교육 콘텐츠 수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등 국제화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강화 방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가 목표로 제시한 QS 글로벌 TOP100 진입 전략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이어진다.

전북대는 이번 컨설팅으로 중간·최종평가 대비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JJ 인터내셔널 버디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국제교류원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2025 JJ International Buddy Program(인터내셔널 버디 프로그램)의 성과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인 재학생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멘토 40명, 그리고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멘티 40명이 참여해 총 80명이 한 학기 동안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캠퍼스 투어 △기초

행정·학사 안내 △기숙사·생활 정보 제공 △지역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소속감을 높였다.

국제교류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과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